

94년 사업계획 · 예산안 승인

과총이사회, 21개단체 신규가입도
鄭根謨, 金鎭炫씨 등 5명 고문추대



◇정기중앙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1월30일 평통회의실에서 1993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한국유화학회 등 신규회원가입을 신청한 21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成樂正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정책개발 기능강화 ▲학회육성 및 학술활동지원강화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확대 ▲재외고급연구인력의 유치활동 ▲과학기술홍보강화 및 풍토조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상설위원회 활동활성화 ▲남북교류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유대강화 ▲회원단체의 당면과제 수렴 ▲과총자율성확립 및 자립기반구축 등에 두고 ▲과학기술정책조사 연구사업 ▲학회학술활동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홍보강화 및 풍토조성사업 ▲남북민간과학기술협력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사

업 ▲회원단체협력사업 ▲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사업 ▲원로과학기술자문단운영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단체 회비조정(안)과 편찬위원회운영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11월18일 과총회장단회에서 심의를 거친 한국

유화학회(회장 盧長淑), 한국공업화학회(회장 金點植),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朴喆熙), 한국유변학회(회장 金相溶), 한국콘크리트학회(회장 朴秉塔), 한국가축위생학회(회장 洪淳國), 한국수정란이식학회(회장 鄭英彩), 한국어류학회(회장 金容億), 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金炳洙),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회장 張潤錫),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金建烈), 대한치주과학회(회장 金鍾寬), 한국농촌의학회(회장 金炳佑), 한국의학교육학회(회장 崔三燮), 한국영재학회(회장 李祥羲), 한국복식학회(회장 李仁子), 대우고등기술연구원(원장 鄭根謨), 한국콩연구회(회장 權泰完), 경인에너지(주)(대표 成樂正), 농어촌진흥공사(사장 趙洪來), 대림엔지니어링(주)(대표 金炳珍) 등 21개 단체의 신규가입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朴肯植 한국자원연구소연구위원, 李祥羲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鄭根謨 대우고등기술원 원장, 李台燮 전과기처장관, 金鎭炫 한국경제연구소 고문 등 5명을 고문으로 추대기로 했다.

재구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 '93운영위원회 개최

吳英錫회장 유임, 「재구과련총람」발간계획도

吳英錫 재구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말 프랑스의 리용에 있는 재구과련 사무실에서 열린 재구과련 93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대 회장(임기 94~95년)으로 재선됐다.

이와 함께 부회장에 한우석씨, 간사장에는 구분국씨가 각각 선임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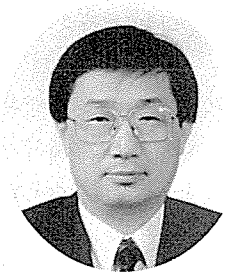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올 첫사업

으로 「재구과련총람」을 연초에 발간하고, 오는 95년에 맞을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 「재구과련 20년사 편찬」 등 각종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유럽간의 공동기술협력협정(학교-연구소간)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고속철도 관련기술 및 기술이전」을 주제로 한·유럽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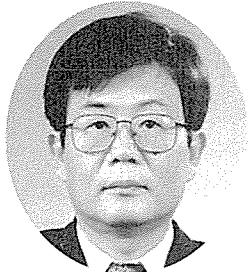
한국과학상

대상에 서울대 徐正憲 교수
金聖珏 · 任正彬 교수는 연구장려상

과학재단, 제4회 한국과학상 수상자 선정발표



◇서정헌 교수



◇김성각 교수



◇임정빈 교수

국내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87년부터 격년제로 선정·시상하는 한국과학상 수상자가 확정 발표됐다.

영예의 대상(포상금 5천만원)은 서울대 화학과 徐正憲교수(45세)에게 돌아갔으며, 연구장려상(연 2천만원씩 3년간 연구비 지급)은 화학분야에서 金聖珏교수(47·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와 생명과학분야에서 任正彬교수(45·서울대 미생물학과)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과학상의 대상은 세계 정상수준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국내과학자에게 수여되며 연구장려상은 세계 최첨단연구수준에 도달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데 대상은 1명, 연구장려상은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등 분야별 1명씩 4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87년 제1회때 金鎭義교수(서울대 물리학과)가 대상을 수상한이후 6년만에 두번째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徐正憲교수는 제1회때 화학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다.

대상수상자인 徐正憲교수의 수상논문

은 「유기반응에 대한 금속이온의 루이스산 촉매작용에 관한 연구」로, 화학연구를 통한 생체반응에서 금속이온의 촉매작용 매커니즘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은 물론 금속효소를 모방해 인공촉매를 만드는 이론을 정립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학분야 장려상수상자인 金聖珏교수의 수상논문은 「비닐에폭시화물의 라디칼반응에서의 자리옮김 반응에 관한 연

구」로, 탄소에서 산소로 기가 전이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 이 반응을 비닐에폭시 화합물등에 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업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생명과학분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任正彬교수의 수상논문은 「GTP사이클로하이드로라제에 의한 테라딘 화합물 대사조절에 관한 연구」로, 인간을 비롯한 영양류에서만 발견되고 특히 인체내의 세포성 면역과 관계된 니오테린이 구아노신 GTP 사이클로하이드로라제 효소의 유도에 의한 것임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니오테린에 의한 바이러스감염, 동종 이식거부현상등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과학상은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등 국내에서 연구한 단일과제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과학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세부과제심사, 외국석학평가, 전문분야심사등을 거쳐 21명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金泳三大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로 개칭
중국과기협, 중앙정부에 국가일급학술단체로 등록

지난 89년 창립 이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과학기술자들의 유대강화에 한 몫을 해온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회장 姜貴吉)가 최근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과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로 명칭

이 개칭되었으며 중앙정부에 국가일급학술단체로 등록을 마쳤다고 알려졌다.

중국과기협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채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사업추진시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랐으나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